
佛母 梁玩虎의生涯에 대한 再考

문 년 순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目 次

- | | |
|----------------------|---------------------|
| I. 머 리 말 | III. 제자들의 활동과 계보형성 |
| II. 연대기와 생애의 몇 가지 문제 | 1. 제자들의 활동 |
| 1. 연대기와 작품활동 | 2. 완호계보의 형성 |
| 2. 생애 복원을 위한 몇 가지 문제 | IV. 맺 음 말 |
|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I. 머 리 말

불모 양완호(佛母 梁玩虎 : 이하부터 ‘완호’라 한다)는 일제 강점기에 부산에서 활동했던 화승(畵僧)이다. 그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은 2004년 11월 부산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영도 복천사 불적 조사를 통해서였으며, 부산 출신에 대한 완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논문이 발표되었다¹⁾.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완호는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경주 불국사, 하동 쌍계사 등 대찰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

1) 문년순, 2007, 『금어 양완호의 예술세계와 영도 복천사』 동국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과 강대민 외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영도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에 완호와 복천사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박은경, 2008, 「완호작, 석가설법도 연구」, 『石堂論叢』 제 42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이 있다.

암에 많은 화적을 남기고 있어 부산을 포함해 경상 남·북도까지 그의 활동이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범어사에서 불화·불상 조성을 배우려고 오는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 범어사 불화소는 부산지방은 물론 타 지역까지 알려져 있었고 몇몇 뛰어난 제자들에 의해 전통 예술의 맥을 현대까지 보존 발전 시켰다.²⁾

그가 생존했던 당시는 서양과 일본을 통한 서양문화의 대량유입과 함께 전국적으로 서양화풍의 기법이 전통화법을 무너뜨리고 있던 시기였으며, 그 시기에 완호는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해 낸 전통불화의 마지막 계승자이자 근대 불화의 시작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따라서 완호 연구는 부산 근대사의 한 부분이자 부산 문화사 정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겠다.

이 글은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새로운 자료가 확보된 만큼 재고(再考)한 것이다. 그가 남긴 커다란 공적은 그의 유작들이지만, 유작에 대한 연구는 예술론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제외 하였다. 우선 최근 새롭게 조사된 완호 작품을 추가하여 그의 연대기적 생애와 작품활동을 개략적으로 살펴 본 다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의문이 제기 되었거나, 밝히지 못한 몇 가지 의문점 가운데 7가지를 중심으로 그의 생애에 관한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II. 연대기와 생애의 몇 가지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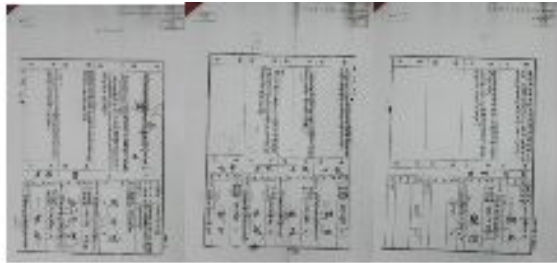
-
- 2) 제자 월주는 완호의 명성을 이은 화사로 문하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 미술을 배우러 왔고 그 중 10여명의 불모들이 현재 한국 불상 불화 무형문화재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작고한 근대 불상조각의 대가였던 부산 동래 권정두도 완호에게서 사사하였다.

1. 연대기와 작품 활동

완호는 1869년 11월 4일 경남 동래군 동래면 복천동 202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양철호와 어머니 최씨의 장남이며, 俗名은 洛現이다. 23세 되는 1892년에 16세의 김차순(1877~1949)과 결혼하여 7남매를 생산했으나, 장녀 한명만 정상 생존하였다.³⁾ 완호는 불화 화기(畵記)에 금어 완호 낙현이라 되어 있는데, <그림 2>의 재적등본을 통하여 완호는 법호이며, 낙현이 속명임을 알 수 있다. 출신지역을 알 수 없어 화맥 계보의 흐름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화사들과는 달리 완호는 출생 연도는 물론 출생지와 거주지, 입적 연도까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불모라는 점에서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진다.



<그림 1> 완호의
진영



<그림 2> 완호의 진영과 재적(在籍)등본
(1986년 작성, 부산 영도구청 제공)

완호의 작품은 1911년 이전의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확인된 작품으로 보면, 그의 화사 활동기는 1911년부터 1931년까지 약 20년이다. 그의 유작들을 해석(解析)해 보면, 뚜렷한 예술

3) 7명을 출산하였으나, 4명은 갓난이 때 잃고, 장남은 27세에 병으로 잃었으며, 차남은 22세에 순국하고, 장녀 한명만 부모의 대를 이었다.

관이 정립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40대의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였던 만큼 이미 축적된 禪·敎의 수행력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생애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조사된 자료와 작품 활동을 연대기로 작성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완호 연보

年月日	歲壽	일상적 사건	유작 및 참고사항
1869. 11. 4.	1	완호 출생(慶南 東萊郡 東萊面 福泉洞貳百貳番地 (현재 부산 동래 복천동))	※<그림 2> 참조 父 : 양철호 母 : 최씨 호적명 : 梁洛現
1890.	21	※문화재청 보고서에 궁중도화서와 해인사와의 관련 표시함(자료 5)	※ 확인 결과 관련사실 없다고 생각됨4)
1892.	23	16세의 金次順(1877~1949)과 결혼	
1896.	27	결혼 4년 지난 후에 長男 寅戔 출생	
1897~ 1904	28~ 35	8년간 자녀 출산이 없고 어떠한 활동 행적도 알 수 없음	
1905.	36	長女 德琮 출생	
1907.	38	貳女 德盡 출생~몰?	
1909.	40	貳男 正戔 출생	
1911.5.	42		김해 영구암 칠성도. ※현재 가장 이른 시기의 그림이다.
1912	43	參女 德守 출생~같은 해 사망	

年月日	歲壽	일상적 사건	유작 및 참고사항
1914. 2. 20 1914. 5. 16	45	○ 이때부터 시찬이 보조 화사로 참여하고 있음	쌍계사 통영포교당의 지장도, 신중도, 칠성도 / 용화사 괘 불 / 범어사 안양암 칠성도 (3폭)와 독성도
1916.	47	參男 相玉 출생	
1917. 춘 1917. 7.	48	參男 相玉 사망. 18세의 임영주 범어사 불화소 입 소	통도사 사명암 석가후불화 / 불국사 신중도
1918년	49		부산 개운암 석가후불화
1919. 3.20 1919. 夏	50		안적사 지장도/ 안양암 지 장도/ 월봉사 신중도/ 울 산 고석사 지장보살좌상/ 동명불원 관음보살좌상/ 함안 장춘사 조왕도
1920.	51	四男 慶煥 출생과 사망, 범어사 冬安居에 참여 (職名 : 獻食)	부산 안양사 아미타후불화, 지장도, 신중도 칠성도 금수암 용왕도 / 통도사 자 장암 석가후불화 / 제주도 월인사 칠성도 / 통도사 사 명암 지장도 / 부산 선암사 석가후불화 / 청량사 석가 후불화/ 울릉군 대원사 아 미타후불화

年月日	歲壽	일상적 사건	유작 및 참고사항
1921.	52	9월에 영도의 현재 복천사 자리에 대웅전(건평 22.44㎡)과 瓦家 3칸을 짓고 「복천암」을 창건하였다. 새 불화 7축을 봉안했다고 전하나, 당시의 7축 중 남아있는 것은 현왕도 1축뿐이며, 현재 복천사에 있는 완호작의 다른 2축은 타 암자에서 옮겨 온 것으로 되어있다. ⁵⁾	통도사 옥련암 독성도 / 거제도 해양사 석가후불화, 신중도, 지장도, 산신도, 독성도 / 기림사 독성도, 산신도, 조왕도, 지장보살좌상과 좌대 / 고성 장의사 감로도 / 복천사 석가후불화, 현왕도, 조왕도, 쌍계사 지장보전 감로도
1922.	53	좌대를 갖춘 불상 5존을 조성하여 봉안함	복천사 석가여래좌상, 보살좌상, 좌대 3점
1923.	54	長男 寅彥(27세) 사망	
1924.	55		부산 연등사 석가후불화 / 지장보살좌상
1925.	56		통도사 양산 포교당 신중도
1927.	58		범어사 계명암 석가후불화 / 무봉사 아미타후불화
1928.	59	貳男 正彥(19세) 일본 유학, 원덕문 입소	범어사 인성암 산왕도와 독성도
1929.	60	貳男 正彥 일본경찰에 체포 투옥됨	
1930.	61		포항 임허사 칠성도, 지장보살좌상 / 불국사 산령도

年月日	歲壽	일상적 사건	유작 및 참고사항
1931.	62	貳男 正彥 사망 완호 入寂	경북 선산 도리사 영 산회 상도, 신중도 / 김성공 스 님 소장 연도 미상의 관음 도 1점
			※불화 51점 불상 7점 조각 4점 총 62점

1905년(36세)부터 1909년(40세)까지 5년 동안은 장녀 德琮과 貳女 德盡과 次男 正彥의 출생이 이어지고 있을 뿐 작품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2년 뒤 1911년(42세)에 김해 영구암 칠성도가 있는데, 住持의 전언에 의하면, 칠성도 뿐 아니라 대웅전에 석가후불화⁴⁾와 신중도도 칠성도와 함께 그려서 봉안되어 있었으

-
- 4) 이 내용은 1970년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81호 단청장 조사(96쪽) 기록이다. 그러나, 해인사에 소장된 모든 불화 화기와 『해인사지』의 내용을 조사해 보았지만 완호와 관련된 기록은 없었으며, 『해인사지』를 편집 저술한 지관스님과, 60여 년 간 해인사에 주석하여 해인사의 역사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홍제암 감원(주지) 중성스님께도 확인했으나 1900년대 완호와 관련하여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즉 해인사에서 완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 5) 손제자 진종만의 전언에 의하면 스승 율주(완호 제자)는 복천암에 완호 7축이 매우 아름답다고 하면서 본을 삼으라 했다 함.
- 6) 불교 그림을 말할 때, 화(畵)와 도(圖)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뜻은 같지만 두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佛畵」를 「佛圖」라고 하지 않음과 같은 이치다. 「후불화」와 「칠성도」처럼 畵와 圖가 그림에 따라 달리 慣用化 되었기 때문이다. 「後佛圖」라고는 하지 않으며, 칠성도와 팔상도를 「칠성화」나 「팔상화」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논문에서 간혹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圖」로 통일해 쓰는 것을 보는데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아도 어감이 어색하며, 통일된 용어를 쓰려면 예로부터 사찰에서 직접 화사들이 사용했고 일반 감상용 그

나 6.25 동란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칠성도 이외 후불화 두 축은 더 그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작이 첫 작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완호 작의 최초 연대를 가진다. 그리고 **1912년(43세)**에 參女 德守의 출생이 있었고, 1913년까지 유작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1914년 이후 완호의 불화나 불상조각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1914년 2월 20일** 쌍계사 통영포교당(범륜사)에 지장도와 신중도, 칠성도를 그렸음이 확인되고, 45일 후인 5월 16일에 용화사 괘불이 있으며, 범어사 안양암의 3폭 칠성도와 독성도가 있다. 1915년과 1916년의 유작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해(47세)에 參男 상옥(相玉)의 출생과 이듬해인 **1917년(48세)**에 상옥의 사망이 있으며, 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즉 봄에 그린 통도사 사명암의 석가후불화와 7월에는 경주 불국사의 신중도가 있다.

한편 전라도에서 18세의 임영주가 완호의 화명을 듣고 그림을 배우기 위해 범어사 불화소에 입소한다. 이듬해인 **1918년(49세)**에는 양산 공인박물관에 소장된 부산 개운암의 석가후불화가 있고,⁷⁾ 1919년 3월 20일에는 안적사의 지장도를 위시하여 안양암의 지장도, 월봉사의 신중도, 울산 고석사의 지장보살좌상, 서울 동명불원에 있는 관음보살좌상, 함안 장춘사 조왕도 등이 있다.⁸⁾

림과 구분하여 일컬었던 「佛幀」을 써야 맞으며, 개수를 헤아릴 때도 「~點」 보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軸」으로 써는 것이 맞다.

- 7) 畫記에는 ‘釜山府 開雲菴 水月觀音道場 奉安’으로 되어있어 釜山市街의 중심에 있던 개운암의 불화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개운암은 도로확장으로 없어지고 현재는 반송동으로 옮겨갔음이 확인되었다. 불화의 본존 좌우 협시보살인 문수 보현이 타고 있는 사자와 코끼리의 형상이 매우 기발하고 해학적 표정으로 묘사 되었는데, 두 동물의 형상은 영도 복천사 불상의 좌대 조각과 매우 흡사하다.

- 8) 참고로 한 점의 작품이 소장된 사찰에는 반드시 그 한 점만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모든 전각의 불화와 불상을 함께 조성하는 경우

1920년(51세)에는 4남 경환의 출생과 사망이 있었고, 범어사 동안거에 참여하였다. 이 해의 유작은 많은 편인데, 부산 안양사 아미타후불화, 지장도, 신중도, 칠성도가 있고, 금수암 용왕도, 통도사 지장암 석가후불화, 제주도 월인사 칠성도, 통도사 사명암 지장도, 부산 선암사 석가후불화, 청량사 석가후불화, 울릉군 대원사 아미타후불화 등 11축의 불화가 남아있다. 불화 11축이면 한달에 한축씩 완성하더라도 11달이 걸린다. 그런데 11축으로 한정할 수도 없다. 실제로는 11축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1921년(52세)에는 영도에 현재 복천사의 전신인 복천암(대웅전 및 요사)을 창건하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복천암의 준공 전후로 완호의 불화가 많이 남아있다. 불화의 조성은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매우 힘든 작업이다. 많은 작품을 쉬지 않고 조성하려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어려움에도 작품을 多作 하였다는 것은 암자 건립에 따른 경제적 사정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 해는 불화 14축과 불상 1상(기림사의 좌대 갖춘 지장보살좌상)이 남아 있는데, 이렇듯 量産된 작품들이 예술성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예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완호의 修行力과 예술기량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화를 가장 많이 조성하는 동래의 임석정 불모가 일년 평균 8~9축이라고 한다. 그것도 3명의 전수생들이 보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완호가 1년에 14축의 불화와 좌대를 갖춘 불상 1존을 조성한 것은 대단한 역량이라 하겠다. 그리고 1922년(53세)에는 복천암의 새 대웅전에 봉안할 불상 5존을

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동명불원 관음보살좌상의 경우도 처음부터 독존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3존으로 봉안되어 있던 것을 봉안했던 사찰이 새 전각을 신축하면서 전각에 맞는 불상을 조성하게 되자 완호의 불상은 아무렇게나 흩어졌는데, 이때 흩어진 삼존 중의 一像이라고 주지승은 전한다.

좌대와 함께 조성하였다. 수량으로 말한다면 조각상 10점이 된다. 이 중 3존의 보살상(지장·문수·관음)과 지장·관음보살의 좌대는 1970년대에 도난당하여 없다. 도난당한 3보살상과 좌대는 완호의 제자인 권정두·정학 형제가 새로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남아있는 석가여래좌상과 보현보살좌상에는 조선시대 불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두광을 금속으로 따로 만들어 부착하고 있다. 이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환조불상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인데, 이러한 조상 양식에서도 완호는 맹목적으로 시대에 따르기보다 스스로 造像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자형좌대와 코끼리형좌대 <그림 3>, <그림 4>도 완호의 예술적 기예와 해학적 표현력이 돋보이는 수작이다.⁹⁾



<그림 3> 사자형 문수좌대



<그림 4> 코끼리형 보현좌대

1923년(54세)에 장남 인욱이 27세의 나이로 병사한다.¹⁰⁾ 1914년부터 왕성했던 그의 작품 활동은 이 시기의 유작이 한 점도

9) 코끼리 좌대 저부가 갈라져 있는데, 장차 더 크게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나비(▶◀) 모양의 나무 췌기를 만들어 깊이 박음질 하여 벌어진 틈이 더 이상 갈라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두었다. 단단한 돌에 나무 심을 박기 위한 작은 나비형 공간을 어떻게 파내었는지 절묘하다.

10) 장남 병사한 사실은 박헌목 교수의 전언이다.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남을 잃고 중단된 것 같다. 이듬해인 1924년(55세)에는 부산 연등사의 대웅전 불화를 그렸는데, 복천사 후불화와 비슷한 양식이지만, 현재 훼손이 심하여美感이 많이 상실되었다. 또 당시에 연등사에도 5존의 불상(석가 삼존과 지장, 관음보살상으로 추정)을 조성했음이 새로 밝혀졌다.¹¹⁾ 현재 남아 있는 지장보살좌상은 상호가 복천사 불상처럼 경직되지 않다. 1925년(56세)에는 통도사 양산 포교당의 신중도가 남아 있고, 1927년(57세)에는 범어사 계명암의 석가후불화와 무봉사의 아미타후불화가 전하고 있다. 1928년(58세)에는 19세의 次男 정욱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며, 한편 16세의 원덕문 소년이 범어사 화소에 입소한다.¹²⁾ 원덕문은 이로부터 완호 입적 때까지 약 4년 동안 완호에게서 불화를 배우면서 그의 엄격한 수행생활을 본받아 화승으로서의 인격을 도야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다.¹³⁾ 이 해에는 범어사 인성암에 3폭 칠성도와 산왕도, 독성도가 남아있다. 1929년(59세)에는 次男 정욱이 일경에 체포되고¹⁴⁾ 유작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해인 1930년(60세)의 여름에 포항 임허사에 칠성도와 지장보살좌상을 조성하며 불국사에는 산령도를 남기고 있다. 이어서 1931년(61세) 봄에 경북 도리사의 영산회상도와 신중도를 그렸다. 이 두 작품을 마지막으로 완호의 작품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¹⁵⁾ 이 때, 차남 정욱의 출소 소식이 있었다.

11) 연등사는 대웅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9. 8월에 해체하였는데, 이 때, 불단 아래서 완호작 지장보살좌상이 발견 되었다. 연등사 노보살의 전언에 의하면, 지장보살좌상은 1950년에 현재의 불상이 봉안되기 전까지 대웅전에 함께 조성하여 봉안되었던 5존상 중 한 존상이라고 한다.

12) 김석곤: 2001, 『金魚 月洲 元德文의 佛畵世界』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청구논문 3쪽.

13) 김석곤 앞 논문 3쪽.

14) 강대민, 2008, 「양정욱의 抗日運動 小考」,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 경성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41쪽

1931년 완호가 입적하던 해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뿐이다.

2. 생애 복원을 위한 몇 가지 문제

완호의 생애는 필자의 석사 논문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었지만 그 때 풀어내지 못한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 1) 출가 연도는 언제인가?
- 2) 출가 본사는 어디인가?
- 3) 화소(畵所)의 명칭문제
- 4) 복천사의 창건년대
- 5) 영도로 건너간 시기
- 6) 입적년도
- 7) 화맥 계보(화업 사승 관계)

등에 대한 일곱 가지 문제로 압축된다.

첫 번째 출가년도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완호의 출가 입산 시기에 대하여 필자는 이미 석사 논문 때 조사해 보았던 범어사와 통도사, 그리고 해인사의 자료를 재 확인하고 이번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록관에도 자료를 찾았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의 자료는 총독부가 내린 사찰령과 관련한 기록 외는 보관된 것이 없었다.¹⁵⁾ 따라서 유일한 자료인 재적등본에 의지하여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영도구청에 있는 완호의 재적등본을 보면, 1892년 결혼 후 4년 만에 첫 아이를 출산하

15) 범우사 출간, 2000년, 『한국서화가 인명사전』 381쪽 참조

16) 일제 강점기 시대 많은 자료가 있었으나 어디로 어떻게 없어진 것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 僧籍에 관한 문서는 1970년대 대처 비구의 갈등으로 소실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증언도 있다.

며, 그로부터 9년 후인 1905년에 장녀 덕종을 출산한다. 여기서 남녀 23세와 16세이면 출산의 조건이 충분한데 결혼 4년 만에 첫 출산을 하고 다시 8년 동안 출산이 없었다는 점도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외국으로 나간 일도 없는데 자녀의 생산도 없다는 것은 완호가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보아도 무리한 추정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이 기간 동안에 완호가 출가입산 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완호 제자인 시찬의 「호계첩」은 완호의 출가시기를 아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1914년(45세)에 통도사에서 거행된 수계법회에서 완호는 제자인 시찬의 금어 스승으로 사미계를 받는 시찬에게 삭발의식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¹⁷⁾ 승가에서 제자를 둘 수 있는 자격은 승가 법계 품서 상 中德(혹은 定德)이라는 5급의 품계¹⁸⁾를 득한 승려여야 부여된다. 中德이 되어야 師僧이 인정되며, 사찰주지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다. 中德은 승려가 되는 최초의 단계인 ‘行者’과정을 6개월에서 2년 정도 마친 후, 사미계를 받고, 사미계를 받은 후, 다시 최소 4년 이상(현재의 조계종 宗法은 2년 내지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받은 후에 비구계(具足戒)를 받으며, 비구계를 받고 10년 이상이 된 승려에게 주어지는 품계이다. 일제 강점기 때 다소 이런 품계서열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감안하더라도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온 승단의 전통 질서였고 승단의 질서는 매우 엄격했기

17) 이성혜, 2008년. 「불도와 불화소에 대한 기억과 흔적」, 『영도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 연구소, 67쪽

18) 승단의 법계품서는 종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 조계종단에서는 대개 다음의 8계 품서를 두고 있다(대한 불교 조계종 중헌 종법 참조) 8급-行者(사찰 교육 6개월 이상), 7급-沙彌 沙彌尼(사미계 받고 2~4년), 6급-見德 戒德(구족계 받고 1년 이상), 5급- 中德 定德(구족계 받고 10년 이상), 4급--大德 慧德(구족계 받고 20년 이상) 3급- 宗德 賢德(구족계 받고 25년 이상), 2급- 宗師 明德(구족계 받고 30년 이상), 1급- 大宗師 明師(구족계 받고 40년 이상)라고 한다. 이 급수는 매우 엄격하며, 이 품계에 맞게 종단의 소임을 맡거나 추대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완호의 법계품서는 1914년에 5급 품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완호의 법랍(출가 기간)을 계산해보면 승려가 된 지 최소 15년 정도가 된다. 45세에서 15년을 빼면 30세이다. 따라서 적어도 30세 이전에 출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7세 이후부터 8년간 출산이 없으므로 출가 나이를 27세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 혹은 23세 결혼 후 바로 출가 했을 수도 있다. 이는 결혼 후 4년 만에 출산한 사실을 가지고 완호의 출가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완호의 출가는 23세부터 27세 사이로 좁혀진다. 또 시찬의 「호계첩」에서 ‘玩虎洛現禪師祝髮，受沙彌戒於震海禪師’라고 한 것에서 5급 품계였던 완호를 3급 품계 이상의 율사와 함께 ‘禪師’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이미 완호가 승려사회에서 반듯한 수행력을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1914년(45세)에 완호는 법사나 율사의 자격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中德의 5급 품계였음을 참고하여 보면, 이 때 완호의 법랍은 13년 이상 20년 이하이다. 이 법랍을 가지려면 출가 시기가 26세(1897년)에서 30세(1899년) 사이여야 한다. 그러나 27세 이후 8년간 無産일 수가 없으므로 30세 출가는 아니라고 보며, 결국 26세에서 27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7세에 장남을 얻었으므로 26세도 제외된다. 결국 27세만이 출가의 시기에 맞추어진다. 만약 27세에 출가 했다면 1914년에 법랍 18년이 된다. 즉 완호의 출가 시기는 27세로 보는 것이 가장 근접된다 하겠다. 완호는 왜 결혼을 해 놓고 출가 했을까? 그 시대 다른 출가자들과 마찬가지로¹⁹⁾ 암담했던 당시의 사회상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9) 해인사의 성철스님도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하고 딸을 한 명 생산한 후에 출가 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한용운 스님도 결혼한 분이다. 이런 사실보다는 일제강점기 승려사회에 관하여 연구 성과가 가장 많은 동국대학교 김광식 교수에 의하면, 완호가 살았던 그 당시는 결혼한 승려가 95%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둘째, 완호의 出家本寺의 문제이다.

완호의 직계제자인 월주 원덕문이 1928년 범어사 불화소에 입소하여 완호선사 지도하에 화업을 수료했다²⁰⁾고 하였으며, 완호의 유일한 혈육인 외손 박헌목 교수도 완호가 범어사에서 출가했다고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헌목 교수의 어머니는 바로 완호의 장녀이다.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불화장 118호인 임석정은 근대의 불모들을 말할 때, '창원 佛母山 聖住寺는 佛母를 배출하는 곳이므로 山名마저 佛母山이었고 ...중략...梵魚寺에 玩虎佛母, 華嚴寺에 一源佛母가 있었으며...'라고 하였다.²¹⁾ 뿐만 아니라 근자에 필자의 자문요청에서도 임석정은 스승 일섭 화사로부터 '범어사 완호불모'라는 말을 전수 기간 동안 들어왔다고 전하였다. 앞선 3명의 증언은 비록 기록물은 아니지만 기록 이상의 신뢰성 있는 입체적 증언들이다. 불모계의 증언, 친족의 증언, 제자들의 증언으로 각자 전혀 연결 없는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증언한 것이다.

이성혜의 글에서 완호가 제자 시찬의 촉발을 통도사에서 했다고 하는 시찬의 「호계첩」에 근거하여 어느 절 출신인지 알 수 없다하고, 혹은 통도사 출신일 수 있다고 제기한 것은, 당시 수계식에 대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찰의 수계식은 1981년도부터는 통합계단²²⁾으로 직지사에서 1년에 한번 하고 있다. 그러나 1981년 이전에는 출신 사찰에서 받기도 하지만 사정에 따라 다른 사찰로 가서 받기도 했다.²³⁾ 그러므로 시

20) 문화재청, 1997, 『무형문화재지정 보고서』, 133쪽 참조

21) 임석정, 1992년, 『한국의 불화 초』, 통도사 정보 박물관, 9쪽

22) 계단(戒壇)이란 「금강계단」이라 하며, 「부처가 설법하고 있는 자리」란 뜻이다. 그 곳에서 승려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계율을 지킬 것을 약속 받는 受戒儀式을 거행한다. 통도사에 금강계단이 있지만 넓은 의미로 대웅전이 있는 곳은 모두 금강계단으로 보면 된다.

찬이 비록 범어사 행자라 하더라도 사미 수계식은 범어사가 아닌 통도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²⁴⁾ 위 증언자들의 증언을 정리해본다면, 완호가 범어사에서 출가한 범어사 출신 승려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셋째 畵所의 명칭문제이다.

2007년 필자가 석사논문을 쓸 때, 가장 큰 의문점을 남긴 문제가 화소의 명칭이었다. 몇 점의 자료에는 「범어사 화소」라고 되어 있는데, 화소의 장소는 완호가 실제 주석한 곳인 복천암이라고 해야 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자료 부족으로 복천암의 창건년대나, 완호의 법랍, 실제 주석처를 알 수 없었던 관계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였다. 사실 통상적으로 화소(畵所) 혹은 조상소(造像所)란 설치된 장소의 寺刹名에 따라 지칭된다. 대개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방 관아나 조정에서 운영하던 도기소나, 자기소처럼 관에 의해 관리되는 관청이 아니었으므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전국의 몇 곳은 그 사찰 출신 화사가 불화를 그리고 있어서 화소의 소재를 파악할 수가 있다.²⁵⁾

임석정 불모(1928년생~)는 완호가 입적할 때 4세였고 7세부터

23) 자문해 준 스님은 통도사 慧性스님, 해인사 홍제암 용성스님, 담양 용화사 수진스님이다.

24) 밀양 수산 수덕사 주지 性淨스님(시찬의 생질)의 전언에 따르면, 시찬의 출가 본사는 통도사이고 통도사에 입산한 후 행자과정을 마치고 사미계를 받기 전에 장차 금어가 되고 싶다고 하여 당시 통도사 방장이던 구하 스님이 금어가 되려면 범어사의 완호에게 맡겨야 된다고 하여 완호가 시찬의 촉발을 맡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시찬의 통도사에 올려진 법명은 성월이고 이를 나중에 당호로도 사용하여 성월당으로 불렀다고 한다. 통도사 僧籍에는 성월당으로 올라있다.

25) 임석정, 1992년, 『한국의 불화 초』, 통도사 정보 박물관, 9쪽

일섭 불모 밑에서 그림을 배웠다고 한다. 그런 그가 70여 년간의 불모생활에서 주변으로부터 익히 들었던 ‘범어사에 완호불모’라는 말은 이미 보통명사처럼 익숙 된 용어라고 하였다. 또 완호 제자들의 증언이나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 등에서도 제자들의 入所 序文에 언제나 범어사 불화소에 입소하여 완호 화사로부터 수업을 받았다고 구술하고 있다.²⁶⁾ 범어사와 복천암은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이고 寺名도 다르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梵魚寺에 入山, 恩法師에 梁玩虎 和尚(美術家)을 모시고...’라든지, ‘범어사 佛畵所에 入所하여 당대 제일의 大佛母이신 玩虎洛現禪師 指導下에 佛畵所 過程을 修了하고 ...’ 라든지, 또 임영주도 ‘18세에 불교미술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범어사에 입산, 범사에 양완호 화상을 모시고...’라고 했을까? 이를테면 통도사에 차려진 화소를 ‘통도사 화소’, 해인사에 차려진 화소를 ‘해인사 화소’라고 한다. 그렇다면 복천암에 차려진 화소를 ‘복천암 화소’라고 해야지 복천암에 있는 화소를 ‘범어사 화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복천암 화소’라는 명칭은 어떤 자료에서도 발견된 바가 없다. 끝내 ‘범어사 화소’라고 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범어사는 1905년에 경기 충청 지방의 화사 16명으로 구성된 집단 불사를 진행하였다.²⁷⁾ 이 불사를 위하여 범어사 경내에는

26) 문화재청, 1997, 『무형문화재지정 보고서』 참조

27) 1905년에 범어사는 모든 전각의 불화를 새로 조성하였는데, 錦湖若效, 和 普應文性 화사가 이끄는 충청도 갑사 출신이다. 금호약효는 보응문성의 스승이며, 금강산계의 고산축연과 더불어 당시 유행했던 서양화 기법의 음영법과 청록산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불화에 도입했던 화사들이다. 그 때 범어사에서 몇 축의 불화를 조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9축이 남아있다. 이때의 畵師로는 錦湖若效, 普應文性, 慧庵正祥, 觀虛宗仁, 草庵世閑, 漢炯, 敬崙, 天日, 眞珪, 暎學, 柄赫, 法延, 道允, 夢華 大炯, 竺演 등 모두 16명이다.

畵所를 마련했을 것이고 불사가 끝난 뒤에도 몇몇 화사가 남아
서 주변의 불화 주문을 수용하고 있던 것을 예술적 기질이 농후
했던 완호가 그대로 이어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이
보는 데에는 김해 영구암 칠성도의 화기를 보면, 완호가 片手(이
때는 佛事의 총괄 자)로, 그 옆에 화사 祥□□□라고 되어 있
다.²⁸⁾ <그림 5> 완호 불화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유일한 畵記
서명 방식이다.²⁹⁾



<그림 5> 김해 영구암 칠성도 화기부분³⁰⁾

28) <그림 5>의 글자 판독 : 우측부터 誦呪 □潭□□/片手 洛現/畵師 祥
□□□/鐘頭 □□

29) 완호의 불화나 불상의 화기서명 방식은 ‘금어(비구) 완호, 혹은 금어
(비구)낙현, 혹은 금어(비구)완호낙현’으로 한다. 편수명과 화사명을 구
별하여 기록하는 영구암 불화 화기는 일반적 화기방식이다.

30) 향 우측 2번째 줄이 「편수 낙현」 이고, 다음 줄에 화사 「祥□□」 라고

이는 범어사 화소에 남아있던 한 화사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되며, 그렇다면 완호가 그린 후불화로서는 최초의 그림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완호가 처음부터 영도 복천암에서 화소를 시작하였다면 결코 수 십 년에 이르는 동안 불모들 사이에서 ‘범어사에 완호불모’란 말이 전해져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산에 있는 월주의 제자인 진종만(1925년~)선생의 다음과 같은 전언은 이 같은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참고가 된다.³¹⁾ 진종만 선생은 범어사의 해행당(解行堂)이 곧 범어사 불화소라고 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범어사 불화소라고 찾아간 곳이 범어사의 해행당이었고 거기서 월주에게 불화를 배웠다고 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월주의 범어사 입산 과정을 살펴보면, 「월주 원덕문은 부산 중구 영주동 출신으로 1913년 12월 1일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집안은 牛車사업을 하여 넉넉했지만 속세에 살면 短命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부산공립보통학교를 수료하자마자 1925년 13세에 부모님에 떠밀려 선찰대본산범어사에 입산하였다」³²⁾라고 되어있다. 즉 월주는 화사가 되려고 입산 한 것이 아니라 ‘단명한다’는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입산하였는데, 입산한 사찰 내에 불화소가 있었고 행자 과정 동안 불화소를 출입하면서 불화에 관심을 두고 입산 3년 후에 불화소 입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 때 만약 완호가 영도 복천암에서 화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13세의 월주는 불화소의 존재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되어 있다. 편수와 화사를 각각 따로 기재하고 있는 방식이다.

31) “나는 1945년 7월15일 범어사 해행당에서 첫 입문하였다. 해행당 큰 방에서 불화를 배웠는데 그곳이 바로 화소방이었다. 월주가 마을에 심부름 보내면 준 돈으로 모두 빵 사먹고 절에 올라가지 않아서 꾸중 많이 들었다”라고 회고함.

32) 김석근, 2001년, 『금어 월주 원덕문의 불화세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쪽

없었을 것이며, 범어사 경내에 불화소가 있었기 때문에 화소와, 화사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완호가 범어사에서 화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그림 6> 1970년대의 범어사 전경- 우측 아래 긴 담장으로 둘러싸인 세로로 나란히 있는 3동의 건물이 해행당이다.³³⁾



<그림 7> 해행당 자리에 새로 지은 설법전 전경

- 33) 3동 중 좌측 건물에는 작은 방이 여러 개 있는데 ‘판도방’이라 하여 노스님들이 기거하였다고 하며, 가운데 건물의 큰 방이 화소로 사용되었는데 100여명이 함께 숙박할 수 있는 넓은 방이었다고 한다. 1970년 월주가 서울로 가면서 화소가 없어진 뒤에는 주로 행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었고, 혹은 일반 학생 수련회에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전 범어사 승 김성준옹과 현 금정중학교 현익채 교장이 전한다.



<그림 8> 설법전 합각벽 처마
아래 걸린 해행당 편액



<그림 9> 편액 부분

범어사의 화소로 쓰인 해행당은 범어사 박물관 바로 위쪽인데 현재는 해행당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는 2000년 1월에 준공된 2층의 說法殿(<그림 7>)이 있다. 이 설법전의 정면에는 설법전 편액(扁額)이, 좌측 합각벽 처마 아래에 가로 60cm 정도, 세로 30cm 가량으로 보이는 「해행당」 편액이 걸려 있어 이 자리가 옛 해행당 자리임을 전하고 있다.(<그림 8>, <그림 9>) 그러나 1921년 9월 복천암을 건립하고부터 불상과 불화의 조성은 범어사와 복천암 두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³⁴⁾ 범어사에서 화소를 운영할 당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왜 영도에 복천암을 건립했는지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1921년 9월에 영도 복천암을 건립한 후로 완호는 범어사와 복천암을 오가면서 생활하였다고 생각되며, 때로는 복천암에서도 그림을 그렸을 것이지만, 여전히 범어사 화소는 유지되고 있었기

34) 김성준(1921~)전 범어사 스님의 전언.- 「해행당에는 불화 그리는 월주 화사가 있었는데 때로는 복천암에도 있곤 했다」

때문에 입소하는 제자들은 모두 먼저 입산출가 후 범어사 화소로 입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완호가 어디에 주석하고 있는지 범어사의 화소는 완호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자료에서 ‘범어사 화소’에 입소하였다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완호는 범어사를 본사로 출가한 범어사 승려였으며, 1921년 9월에 영도의 복천암을 창건하였으나 복천암의 창건과는 상관없이 범어사에는 화소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완호의 출가 본사와 화소의 명칭 문제를 풀어 보았다.

네째, 복천사의 창건년대이다.

완호의 영도 도강 시기와 맞물리고 있었던 복천사(구 복천암)의 창건 연대도 중요한 명제였으나, 2008년 복천사 대웅전 중건에 따른 해체 때, 상량문에 의해 1921년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1953년도에 완호의 제자이자 복천사의 주지인 영주스님이 신도들에게 돌린 「회사문」(<자료 1> 참조)의 내용에서 25년 전에 양완호 선사가 대웅법당을 창건했다는 연대가 바로 1921년임이 밝혀졌고 따라서 33년 전에 金善周師가 일간난야(一間蘭若)를 시창한 연대도 1953년으로부터 33년 전인 1913년임이 밝혀진 것이다.³⁵⁾ 이 글에서 특히 주목되는 내용이 ‘...今自 三十餘三年前에 金善周師가 一間蘭若로 始創이오 今至 二十五年前梁玩虎禪師가 大雄法堂을 創建矣라...’라는 것으로 1913년에 김선주스님이 1칸의 초막을 형성하여 살고 있던 곳을 완호가 1921년에 대웅전과 요사를 짓고 복천암을 창건했다는 내용이다. 완호가 대웅전을 짓기 전에는 암자의 명칭을 붙일 수 없는 1칸의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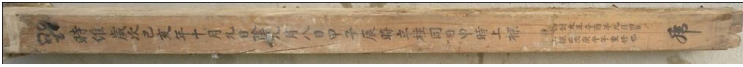
35) 내용은 완호의 제자 임영주가 1953년에 대웅전 보수를 위한 모금을 하려고 신자들에게 돌린 회사문인데, 해운암 靈地에 처음 김선주가 작은 암자를 지었고 양완호가 대웅전을 창건했다는 것이다.

막이었다는 점, 완호가 대웅전을 건립하고 『복천암』이라고 하면서 암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복천암의 건립 연대를 1921년 9월로 보는데 대하여 재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본다. 상량문이 나옴으로써 회사문의 두 연대에 대한 의문도 명백하게 풀어졌다. 완호는 私庵의 필요성을 느끼고 복천암을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암자명이 완호의 俗家 洞名과 같아서 눈길을 끈다.

<자료 1> 喜捨文

「...今夫福泉寺는 釜山港의 防波正門인 影島 海拔 千三百尺 枯渴山 中腹에 在하여 舊時 海雲庵之靈地 이려니 今自 三十餘三年前에 金善周師가 一間蘭若로 始創이오 今至 二十五年前梁玩虎禪師가 大雄法堂을 創建矣라 歲不久而나 大雄聖殿이 風雨霧朽로 自潰未免 危機라 不得已 改築爲計오니 有志 諸賢은 善諒 爲慮하시와 誠心 隨力同結 因緣하여 人天之福田에 善根之種養하심을 合掌發願하외다.佛紀二千九百 八十年 癸巳夏
釜山市 影島 古碣山 福泉寺住持 白」

<자료 2> 복천사 대웅전의 상량보와 상량문



龍 時維歲次己亥年(1959년)十月九日陰九月八日甲子辰時立
柱同日申時上樑始創大正辛酉年(1921년)九月 四日/上樑 二次
庚午年(1930년)重修也 虎³⁶⁾

다섯째, 영도 복천암으로 건너간 시기에 관한 논의는, 앞의 문
제와 연계하여 임영주의 회사문 <자료 1>에 나와 있고, 또 상량
문 <자료 2>으로 확인되었으므로 1921년 9월이라고 밝혀진 것이
라 하겠다.

<자료 3> 「全國寺刹 略史 및 佛教 人事錄」(1972, 불교출판사 간행)³⁷⁾

- 1) 福泉寺
- 2) 釜山直轄市 影島區 神仙3街 6番地
- 3) 住持 林英柱(錦城) 중략
- 4) 18歲時 佛教文化美術에 대하여 工夫하고자 梵魚寺에
入山 恩法師에 梁玩虎 和尚(美術家)을 모시고....
중략

36) 상량문은 기해년(1959년) 시월 구일 음 구월 팔일 갑자 진시에 기둥
을 세우고 같은 날 신시에 상량이라 쓰고 아래에 작은 글씨로 처음 창
건은 대정 신유년(1921년)구월 4일 상량, 9년이 지난 경오년(1930년)
에 중수했다는 내용이 添記 되어 있다.

37) 1970년대에 조계종에서 전국사찰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서에 답한 내용으
로 질문과 논의의 글은 생략하였음.

<자료 4> 「금어월주 원덕문의 불화세계」³⁸⁾

II. 月洲 元德文의生涯 ‘중략...1928년 16세에 범어사 佛書
所에 入所하여 당대 제일의 大佛母이신 玩虎洛現禪師 指導
下에 佛書所 過程을 修了하고 ...중략’

다만 이 문제와 함께 생각되는 것은 완호 가족에 관한 것이다. 완호의 외손인 박헌목 교수에 의하면, 양정옥³⁹⁾ 외삼촌이 부산상고를 다니던 때까지도 동래 복천동에서 살았다고 하는 기억이다. 즉 동래 복천동이 외삼촌과 이모들이 살고 있던 外家로 기억된다고 전한다. 이는 완호가 복천암에 오기 전까지 가족과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게 한 중요한 단서이다. 완호는 동래 복천동 私家에 가족을 두고 범어사 화소에 있었고 나중에 복천암을 건립했을 때도 복천암에 바로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또 그간의 자료나 제자들의 전언에서 완호가 복천암 외 다른 암자나 사찰에 있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완호는 오직 범어사의 화소와 복천암에서의 수행생활, 그 외 가족은 동래 복천동의 私家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함께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여섯째의 문제는 入寂年度이다.

그간의 연구에서 완호의 입적년도가 영도구청 재적등본에

38) 김석근, 앞의 논문 3쪽

39) 완호의 次子로 1928년 부산제 2 상업학교 재학 때, 독서회(혁조회:항일운동 조직)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구속되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나, 악랄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와 곧 사망하였다.

는 1933년이고, 문화재청 보고서에서는 193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양 쪽 다 국가의 공문이어서 어느 쪽의 기록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어려웠다. 이번에 다른 자료의 발굴과 함께 월주의 문화재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문화재청 자료의 기록은 월주의 口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월주는 1928년 16세에 완호 문하에 들어갔고, 1931년 19세 때 완호의 입적을 겪었다. 부모와 같은 스승의 불행한 입적은 충격과 슬픔의 큰 사건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월주의 구술로 기록된 1931년을 완호의 입적 년으로 보고자 한다. 참고로 『韓國書畫家人名事典』에서 완호의 유작이 1931년 이후엔 없다고 한 것이나, 실제 필자의 조사에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과 월주의 제자였던 김용우 불화장 역시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 점도 참고가 된다. 그런데 1931년은 次男이 출소하고 사망한 해이다. 완호의 입적은 차남의 사망과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완호는 승려의 신분으로 뚜렷한 항일운동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次子가 항일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2세의 어린 나이에 일경의 고문으로 세상을 떠난 점이나⁴⁰⁾ 자신도 불화의 화기(畵記)를 쓸 때, 연도표기(年度表記)에서 일본연호(日本年號)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⁴¹⁾는 일련의 정황들을 미루어 그의 항일 의지도 대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²⁾

40) 월주의 제자 진종만 선생이 범어사 화소에 입소했을 때(1945년), 큰스님(완호) 둘째 아들이 영도 절을 팔아서 독립운동자금으로 썼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고 함.

41) 실제 강점기에는 모든 기록에서 일본 연호를 사용해야 했다. 불화의 화기에도 마찬가지여서 거의 모든 화사들은 일본연호를 쓰고 있다. 혹은 일본 연호와 우리나라 연호를 동시에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완호는 현재 발견된 어떤 유작에서도 일본연호를 쓴 예가 없다. 일본연호 대신 世尊應化, 혹은 應化, 혹은 佛紀로 대신하고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완호의 화맥계보이다.

이 문제는 완호가 언제부터 불모 활동을 시작한 것인지, 사승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문제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화승이란 임란 이후로 사찰이 새로 중창되거나 중수, 혹은 창건되는 과정에서 불교미술의 수요가 많아졌고 일시에 불화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제작하였다. 즉 대형의 불화를 조성함에 있어 한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조상소(造像所 : 畵所)를 설치 해놓고 여러 작업을 분업형태로 분담하였기 때문이다. 대형화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화면에 그리는 그림을 여러 사람이 분업하여 한다는 것은 일의 진행은 빠를 것이나, 종교적 이상을 구현시키기에는 마땅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首畵師의 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 기예가 각자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불화 중에는 종교적 예술성이 뒤떨어지는 불화가 많다. 그러나 이들 화승집단은 자연히 師承關係가 이루어지고 계보가 형성되었으며, 활동지역은 크게 금강산계 화맥, 경기도계 화맥, 전라도계 화맥, 충청도계 화맥, 경상도계 화맥으로 나누어 졌는데, 조선 19세기 중기까지는 이런 계보의 형성이 비교적 뚜렷했으나, 19세기 말부터는 각 지역의 화승들이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공동 참여함으로써 지역성이 없어지고 복잡하게 얽혀서 화승 계보가 사라지고 있다.⁴²⁾

전국의 사찰에서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불화들도 조선 후기 못지않게 상당히 많다. 나라의 억불정책과는 상관없이 ‘신앙’이라는 의지처(依支處)에 마음을 기대어 현실적 고통을 해

42) ① 문년순, 2008, 「일제강점기 불화 화기 연호 사용 연구」, 『박물관 연구논집』, 부산박물관, 23쪽 참조

43) 안귀숙, 앞의 논문, 『美術史 研究』 제8호.

결하려고 했으므로, 사찰은 여전히 건립될 수밖에 없었고, 불상과 불화의 조성은 뒤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화사들의 역할도 조선 후기 못지않게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⁴⁴⁾ 화파의 특징이 두드러졌던 조선 중·후기와는 달리 완호가 활동하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르면 그들의 지역성이나 파벌개념은 이미 사라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서양 화풍을 수용하여 전통 화법에 접목하는 화사들이 생겨나면서 불교 미술에도 비전통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조선 말기의 화사는 일정한 계보에 소속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완호는 공동 작업으로 조성된 불화의 화기에서는 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완호의 계맥도에 대하여는 1970년에 제자 원덕문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자료 5>의 도표 하나가 전부이다.

이 계맥도는 월주의 구술에 의하여 조사자(예용해)가 기술한 것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장 중요한 완호의 스승으로 표시해야 할 위치에 「도화서」와 「해인사」라고 표기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결국 조정의 한 부서인 「圖畫署」와 「해인사」라는 사찰에 관련이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서술어가 없으므로 도화서와 해인사와 완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 사승의 위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완호의 전통불화 師僧과 관련된 도표라는 점

44) 필자가 완호의 족적을 찾기 위하여 부산 일대의 일제 강점기 시대 사암을 찾아보았을 때, 거의 다 사라지고 몇 남지 않은 사암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규모가 대지 66㎡(20평)에서 100㎡(30평정도)의 암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사찰이라기보다 토굴 정도에 불과한 극소규모로 당시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산중의 절에 갈 수가 없었으므로 주거와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고민을 풀고자 하였던, 정신적 의지처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잘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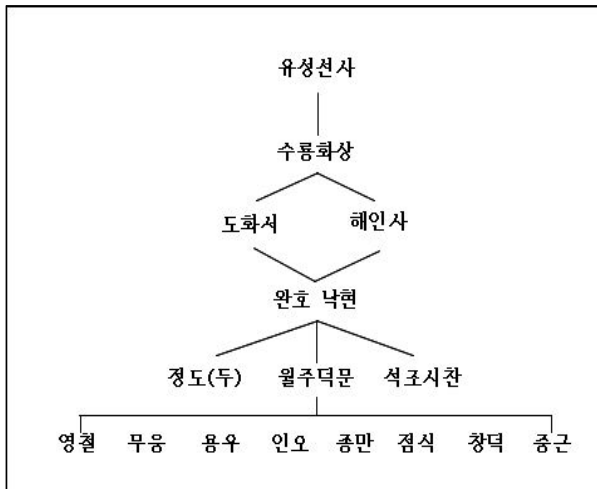
에서 도화서와 해인사, 도화서와 완호, 해인사와 완호라는 삼각구도에서부터 찾아보기로 하였다. 삼각구도에서 먼저 생각되는 것은 도화서 화원이 해인사의 불화 불사에 감독으로 내려왔고, 그 불사에 완호가 참여함으로써 불화를 배웠다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조선말기 도화서와 해인사 간의 관계를 해인사의 기록물에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완호가 10세 되는 1878년부터 완호의 가장 이른 시기의 유작인 김해 영구암 칠성도가 그려진 1911년까지의 기간에 도화서 화원이 해인사의 불사에 참여한 일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일에 해인사에 주재했다는 기록은 없었다. 물론 궁중 도화서 화원이 사찰의 불사에 참여하려면 왕실이 개입된 불사여야 하고, 그렇더라도 도화서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실제 참여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잠깐 참여할 뿐이므로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완호가 관련될 수 있는 연도 내에서 도화서와 해인사간의 내왕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다음은 도화서와 완호의 관련성인데, 1921년 이후 그려진 완호의 여래 후불화의 일부분에서 1911년에 그려진 김해 은하사 대웅전 후불화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은하사 대웅전 후불화의 金魚가 두훈과 학규인데, 이들이 도화서의 회원일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 오세창의 『근역서화징』을 살펴보았으나 아니었으며, 더 이상의 추정은 불가하였다. 다음 해인사와 완호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위하여 해인사 所藏의 불화 중, 1878년부터 1911년까지의 畵記 조사를 하였고, 해인사 도서관과 『해인사지』⁴⁵⁾, 그리고 해인사 박물관에서 추천 받은 홍제암의 감원인 종성스님께 자문을 구했으나, 완호와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없었다.⁴⁶⁾ 다시 문화재청의 계맥도를

45) 이지관, 1992. 2, 『가야산 해인사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46) 종성스님은 해인사에서 60여년을 주석한 분으로, 특히 불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서, 생각되는 바는, 조사자가 조사할 당시에 전통성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인사 불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뜻으로 작성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정도에서 완호의 사승을 밝히는데 있어 해인사와의 직접적인 사승 관련성은 희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보고서에서 「도화서」와 「해인사」라고 되어있는 계맥도 표시는 완호의 師僧 규명에 아무 참고가 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자료 5> 보고서의 계맥도



여 가장 많은 기억을 가졌다고 하였으나, 완호에 대하여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해인사지』를 쓴 지관스님께 알아보라 하였다. 지관스님은 『해인사지』 제27편 「해인사 사적의 각종 단편자료」 ‘46. 전국 화백에 대하여’(해인사지 1204~1205쪽)라는 항에서 자신이 들었거나 알고 있는 근대기 불모 26명을 지역별로 거론했는데, 금강산계의 석옹에서부터 밀양의 김용주에 이르기까지이며, 부산불모는 朴俊珠-己巳生 한명이 있을 뿐이다.

남은 자료는 완호의 불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완호는 자신의 그림 화기에서 ‘金魚比丘 玩虎’라는 獨名이거나 가끔 ‘施讚’이나 ‘施仁’ 혹은 다른 제자가 한번 정도씩 보일 따름이다. 이 때는 이미 소형의 사암이 많이 창건되던 때여서 작은 전각의 소형불화 수요가 많게 된다. 이것은 여러 사람의 대형 작업이 필요치 않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완호는 종교예술을 마치 공장의 제품생산 하듯이 여러 사람이 분업화 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완호의 예술에 대한 이해의 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완호의 작품 활동 시기를 알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보고서가 참고 되지 않는 이상 그의 생활주적을 더듬어 가면서 첫 작품 활동의 시기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05년 범어사의 불화불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발견되는 유작도 없다는 점에서 1905년까지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작품으로서 현재 가장 이른 시기의 유작은 1911년(김해 영구암 칠성도)이므로 작품 활동의 시작은 1906년에서 1911년 사이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1911년 이전까지의 유작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1906년에서 적어도 1908년까지는 직접 불화를 조성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다. 아마 草를 구한다든지 조상경을 읽고 불상의 의미를 공부한다든지 하는 준비 기간 정도로 볼 수밖에 없겠으며, 실제 붓을 잡은 때는 1908년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완호의 여래 후불화 가운데 영도 복천사 후불화가 김해 은하사 대웅전의 석가후불화(1911년작)를 모본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이 그림을 그린 두훈과 학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지만, 그것도 그 불화의 草(밑그림)를 얻거나 모본으로 삼았다는 정도이고, 다른 주제의 불화들은 또 다른 옛 그림을 모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훈과 학규를 완호의 師僧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림 10> 두훈, 학규 작 은하사 석가후불화 부분



<그림 11> 완호 작 복천사 석가후불화 부분

완호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불화들을 골라서 모본으로 삼아 연구하고 창의력을 더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갔다고 본다. 여기서 참고 되는 바는,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불화장 118호인 임석정 불모가 『한국의 불화』⁴⁷⁾에서 ‘완호불모는 신심이 지극하여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불화를 그렸다고 한다’라든지. 또 ‘...완호불모는 신심과 정성이 대단했으며, 佛國寺 石窟에서 大佛母의 원력을 세우고 기도해서 이를 성취했다는 말이 전해지는

47) 『한국의 불화』 1권, 통도사 본사편(上), 244쪽, 9줄, 245쪽, 20줄

분이다. 또 근세의 善知識이신 鏡峰스님께서도 玩虎佛母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대불모라고 하셨다' 라는 口傳이다. 조선시대의 많은 불모 중에 이와 같은 수식어로 존경받은 불모는 거의 없다. 완호는 단지 기예에 따른 학습보다 불모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깨달음을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현재 발굴된 유작 외에 여러 선승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만한 불화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자 그의 독학을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불교회화는 후불화 뿐 아니라 주제별로 많은 불화들이 있다. 수십 종류의 불화는 불교경전에 의거하되, 무한대의 변용이 가능하다. 그런 무한적 변용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그의 불화나 불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마음에 드는 전통 불화를 통하여 익혔다고 하는 말이 된다. 따라서 완호는 스스로 畵面師塾하여 불모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전통불화 중에 아주 잘된 불화들만 골라서 배웠다면, 어느 한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더 넓고 깊은 시야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으로 위에서 제기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한 일곱 가지 문제는 그동안 완호에 대한 분명치 않았거나, 의문되었던 점을 풀어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의문점들은 남아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향후 완호의 작품과 사료가 좀더 발굴되어 부족한 논고가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III. 제자들의 활동과 계보형성

1. 제자들의 활동

완호의 제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선 완호 조

성 불화나 불상에 남겨진 기록에는 施讚, 施仁, 영주, 南湖, 月洲, 性文 등 6명이 보이고 월주의 무형문화재지정 보고서에는 廷斗, 월주, 시찬 3명이 있다.(자료5 참조) 그러나 필자가 조사 중에 알게 된 완호 제자 가운데는 부산근대 화단을 이끌어온 우신출(1911~1992)도 있었다.⁴⁸⁾ 우신출은 화가가 되려고 범어사로 출가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2006년에 만난 월주 제자 진종만 선생이 우신출도 완호에게서 미술공부의 기초를 배웠다고 하면서 완호의 명성이 대단하였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우신출은 전통 회화를 하지 않았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근대기 일반미술가들을 소개하는 김준기 선생의 글⁴⁹⁾에서 다시 우신출이 잠시 범어사에 출가했다는 언급이 있어 진종만 선생의 전언을 상기시켰다. 우신출이 화가로 진출하려던 때, 부산에서 미술을 배울 곳을 찾다가 범어사의 완호스님 명성을 듣고 찾아 갔을 것이며, 그 때 완호는 승려가 아닌 일반인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로지 그림을 배울 생각으로 출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단지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얼마 후 환속했다고 보는 것이다. 완호의 제자들은 나중에 환속하더라도 처음에는 모두 승려로만 입소하고 있다. 우신출의 이야기는 임영주가 전라도에서 완호의 명성을 듣고 미술을 배우고자 부산 범어사까지 온 것과 함께 당시 완호의 명성이 부산 지방 미술계에 크게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자료 5>의 표에서는 완호의 아래로 그려진 제자에 정두와 월주, 시찬으로 압축되고 월주를 완호 직계의 중심에 두었다. 그러므로 제자의 활동은 월주 원덕문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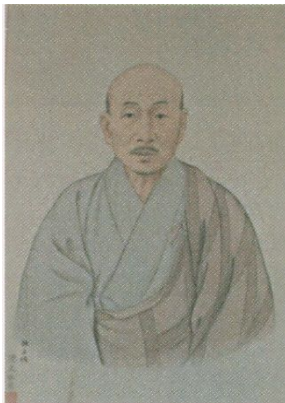
48) 우신출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4세에 부산 수정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중학교 미술교사, 장학사를 거쳐 기장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필자가 기장 중학교 재학 때인 1960년대까지도 기장 중학교 교장실은 물론 각 교실과 복도에는 우신출 교장의 유화 그림들이 걸려있었다.

49) 김준기, 2008. 4. 24, 「부산미술 다시 읽기」 부산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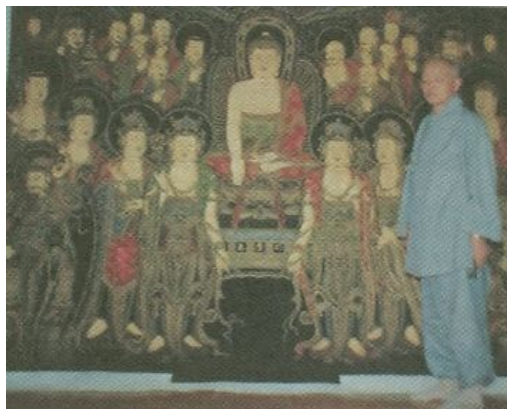
보기로 한다.

월주 원덕문(1913~1992)은 부산 중구 영주동 출신으로 1925년(13세)에 범어사에 출가입산하고 1928년(16세)에 범어사 불화소에 입소한다. 그러나 16세에서 19세까지 4년 정도 수학 중에 완호가 입적하자 범어사 화소로 들어오던 불화제작을 스승 대신 맡아서 조성하면서 본격적인 화사생활에 들어갔으므로 1932년부터 입적할 때까지 일본 유학기 2년을 제외한 약 58년간 불화조성과 사찰의 단청-벽화를 그렸다. 산수, 인물, 선화, 민화 등을 수묵과 니금으로 그렸고 단청의 모든 회화를 다 아울러 어느 그림에도 막힘이 없었다. 한편 범어사 講院에서 6년에 걸친 경학공부를 하여 大敎科를 마치고(1939년), 다음해 일본 오오사카시립 미술학교(大阪市立美術學校) 동양화과에 입학한다. 그러나 2년 후 일본의 청룡사전(靑龍社展) 입상 후, 바로 귀국하여 왕성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1945년에 『녹원성화림(鹿苑聖畵林)』을 창립, 1946년 불교청년회 경남본부장 취임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6.25때는 불화의 주문이 없게 되자, 미군초상화를 그렸다고 한다. 이 때 완호의 초상 1점 <도12>도 남기고 있다. 1970년 서울의 홍천사 불사를 계기로 서울 홍천사에 주석하게 되면서, 서울의 단청장인 金龍(김일섭)과 萬峯(이치호)과 더불어 국가 무형문화재 단청장 제48호로 지정받았다. 이들 중 월주만이 사단법인 단청문양보존 연구회를 설립하여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한편, 1980년부터 불교미술전람회 심사위원이 되고, 1987년에 보은장학회의 장학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월주 원덕문 한국화전』을 하였다. 부산 신창동 대각사에 거주 시절, 경주 불국사의 천수관음상 조성 외 많은 불화 불상을 조성하였다.⁵⁰⁾ 특히 영국 황실에 원덕문의 泥金山水 병풍이 있다. 월주는 10대 때 완호로부터 받은 4년간의 교육이 자신의 미술에

대한 지표라고 하였다. 월주에게 완호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자주 완호의 말을 인용했다고 한다. 전통 미술가로 성장한 월주는 그렇게 평생 완호의 가르침을 회상하면서 제자를 가르쳤기 때문에 월주의 제자들은 개인적 화풍이 달라도 완호계열임을 자부하면서 긍지를 가진다고 하였다.⁵¹⁾



<그림 12> 월주 그린
완호초상



<그림 13> 월주의 니금석가후불화와
그림 앞에 선 월주

다음은 권정두(權貞斗, 1913~1969)이다. 권정두는 구포에서 활동한 불상 조각가이다. 월주가 완호의 제자에 자신과 함께 선배의 위치에 두고 있으므로 완호 제자임에는 틀림없으나, 완호에게

50) 김석곤의 앞 논문에서 월주의 작품 예를 조사한 통계는 약 120여점으로 나온다. 그러나 본인의 추산에 의하면 120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 개인에게 그려준 선화와 민화도 매우 많으며, 사찰의 벽화도 매우 많다.

51) 김석곤, 앞의 논문 전편 참조.

서의 전수 기간이 몇 년인지는 알 수 없다. 학습 초기에는 역시 불화와 불상을 함께 조성하였지만, 후에 불상만 조성하여 불상 조각가로 알려져 있다. 경상도 지역에는 권정두의 불화가 종종 발견되고, 많은 사암에 그가 조성한 불상이 있다. 부산에는 금정산 병풍암⁵²⁾ 보광전에 아미타여래상과 대웅전의 관음상, 삼성각의 독성상이 있다. 그는 1969년 한창 원숙하게 작품 활동을 할 56세에 타계하였다. 그의 아우 권정학(1915~2008)씨가 형의 뒤를 이어 불상 조각을 계승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사암에 조성 봉안된 불상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권정학 자제들이 가친의 업을 이어 불교 조각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어 權氏家脈을 형성하고 우리나라 불상조각계의 가문으로 발전하였다.

다음으로 시찬 (施讚:1898~1957)이다. 시찬은 施仁和 함께 완호 불화의 화기에 가장 많이 보이는 제자이다. 그러나 시찬의 활약은 보이나, 시인은 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시찬의 출가 본사는 통도사이며, 은사는 구하스님이다. 俗名은 孔岩海이고, 호가 시찬이며, 법명이 월성이고 당호는 월성당(月星堂)이다. 시찬의 통도사 「護戒牒」 때문에 완호의 본사가 통도사 출신일 수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몇 살에 통도사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나, 1914년 17세에 사미계를 받을 때, 장차 불모가 되고자 완호에게서 머리를 깎았던 것이며, 사미계를 받던 1914년에 바로 완호의 수하에서 불화 수업에 들어갔다. 1914년에 조성된 완호의 통영 포교당 불화 3축에서부터 보조화사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완호가 입적한 1931년의 마지막 선산 도리사의 불화에까지 가장 많이 완호의 화기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완호의 愛弟子로 생각된다. 완호의 입적 후, 시찬도 고향인 밀양 수산으

52) 『병풍암』은 마애 석불로 인하여 현재는 『병풍암 석불사』 혹은 『석불사』로 寺名이 바뀌었다.

로 돌아가서 수산의 수덕사에 주석하다가 동명중학교설립을 주도하고, 동명중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1945년~1954년)했으며,⁵³⁾ 60세에 入寂하였다.⁵⁴⁾ 아마도 스승 완호의 유지를 받들었다면 제자 중 시찬이 가장 완호의 교육적 영향이 컸을 것이다. 특히 경남지역의 사암에서 시찬의 불상과 불화가 여러 점이 보이니, 대개의 불상은 복장이 없어져서 시찬작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림 14> 병풍암의 권정학, 원덕문이 조성한 마애불상군

53) 밀양 수산 동명중학교 행정실에서 확인됨

54) 밀양 수덕사 주지 性淨 스님(시찬의 생질)의 傳言이다.

마지막으로 임영주는 전라도에서 완호의 화명을 듣고 불화를 배우러 왔으나, 영주의 불화나 불상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뒤에 복천사의 주지가 되어 포교에 힘쓴 인물이다.

2. 완호계보의 형성

월주 원덕문의 문하를 거친 사람은 약 120여 명이 된다고 한다.⁵⁵⁾ 그 중 현재 전통미술분야에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이가 영철, 무용, 인오, 창덕, 중근, 외 진종만, 홍점식, 김용우이다. 모두 서울 경기 충청권은 물론 영남지방까지 단청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중에 진종만, 홍점식, 김용우는 지방 단청기능보유자 혹은 조교로 지정되었다. 현재 한국 불교미술계를 이끄는 주역들이다. 특히 진종만은 마산에 상주하면서 중등교사로 22년을 재직하였고 마산공업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전통도예로 전환하면서 1971년부터 마산미술협회사무국장을 시점으로 경남도전 심사위원, 사단법인 단청문양 보존 연구회 이사, 전통공예보존협회이사, 사단법인 한국무형 문화재 보존협회 운영위원장 등 전통미술 관련 지도자의 역할을 도맡았다. 1966년부터 도예 개인전이 무려 42회, 단체전이 12회, 수상경력이 대한민국예술교육 문화상 공작상부문 최고상을 수상하고, 대통령상 지명 공모전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위시하여 여러 공모전에서 26번 수상하고, 중등 미술교육 논문도 당선되었다. 프랑스, 일본, 소련, 인도네시아 네델란드의 외국 원수에게 작품 기증, 외 지방 단체장 등에게도 60여 곳에 기증하였다. 완호에서 월주로 다시 곡우로 이어진 3대의 공과가 찬란하게 피어난 것이다. 곡우 진종만은 마산지방에 머물지만 대한민국의 작가가 되었다.

55) 월주의 고전연수원 승계제자 김용우 불모의 전언이다.

이의 김용우⁵⁶⁾와 홍점식과 이동원⁵⁷⁾의 활동도 전국적이다. 완호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불상과 불화 양 쪽을 넘나들며 기예를 넓혀갔다. 이것은 완호 때부터 내려오는 완호계의 화승 집단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이다.⁵⁸⁾ 그것은 김용우 단청장의 말처럼 좋은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불화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완호의 가르침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새로 발견된 자료를 중심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과 의문으로 남겼던 몇 가지 내용을 풀어나가면서 완호의 생애를 되짚어보았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한다.

우선 생애복원을 위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결론이다. 그 첫째가 출가 연도인데, 앞뒤의 정황상 27세가 가장 근접된 나이라고 하겠으며, 혹은 27세 전후의 시기로 결론을 내렸다. 둘째는 출가 본사의 문제로, 불모 임석정, 친족 박현목 교수, 제자월주 원덕문의 증언과 그 외의 여러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완호의 출가 본사가 범어사임을 밝혔다. 셋째는 완호연구의 초창기에 자료의 부족과 자료해석의 난맥상이 얽혀서 완호가 복천암에서 화소를 운영하였다고 본데서 시작된 오류인데, 바로 畫所의 名稱이다. 제자들이 범어사 畫所에 입소하였다고 남긴 자료에서 왜 영도 복천암 화소에 입소하면서 ‘범어사화소’라고 하나? 하는 의문

56) 1971년 제 48호 국가지정 단청장 조교 지정., 불화장이나 불상조성도 뛰어난. 대표 불상 조각으로 마산 청룡사 대웅전에 阿彌陀三尊像이 있다.

57) 홍점식과 이동원은 국가지정 단청기능보유자 제48호이다.

58) 佛像과 佛畵를 동시에 造成한 畵師로는 17세기의 진열이 있었으나 불화는 남아있지 않고 진열은 조각승으로 남아있다.

이었다. 즉 복천암에 설치된 화소라면 범어사 화소가 아닌 ‘복천암 화소’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월주의 제자 진종만 선생이 범어사의 해행당에서 입소한 옛일을 회고하는 과정이 포착됨으로써 ‘범어사 화소’란 당연히 범어사에 있던 화소이며, 그 장소가 범어사 해행당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자료와 더불어 월주의 서울 입성년도인 1970년 바로 직전까지 해행당은 범어사 화소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완호가 20여 년간 제자들에게 전통 불화를 가르치고 많은 불화를 조성했던 장소는 복천암이 아니라 바로 범어사 화소인 해행당 이었던 것이다. 복천암은 완호 생전에 약 10여 년 정도 휴식과 수행의 장소로 머물렀던 곳이었다.⁵⁹⁾ 넷째, 복천사의 창건 연대이다. 2008년 복천사 대웅전 중건을 위해 건물을 해체했을 때, 상량문에서 복천사의 창건은 1921년임이 확인되었고, 이 연도는 1951년 임영주 住持가 신도들에게 돌린 대웅전 중수를 위한 「회사문」에 적시된 창건 연대와 정확히 맞음으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어졌다. 동시에 다섯 번째 완호의 영도 入島 시기도 함께 1921년임이 밝혀진 것이다. 여섯째, 화맥 계보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작인 영구암의 칠성도 畵記를 통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추정이 가능해졌는데, 어느 화승집단에서 활동한 흔적도 없고 혹은 한 스승에게서 사숙한 적도 없으며, 주변 불모들에게서도 완호는 누구의 제자라든가 어느 계보의 불모라든가 하는 연관성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그림에서만 화명을 남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완호는 화승들로 이루어진 화맥 계보에 있지 않고, 옛 그림들로부터 이루어낸 畵面私塾한 결과라고 보았다. 즉 완호는

59) 불교 성조물은 봉안할 사찰 경내에서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범어사 화소나 복천암에서도 조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 교육장으로서의 지정된 화소는 범어사의 해행당으로 확인되었다.

독학으로 화사가 된 것이다. 마지막 7번째의 入寂年度 문제도 영도구청의 재적등본 보다, 문화재청의 보고서 기록을 선택하였다. 문화재청의 보고서는 완호의 입적소식을 가장 비통하게 접한 제자들 가운데 1970년대까지 생존해 있던 월주 원덕문이 생전에 구술하여 작성되었다는 점과, 서화인명사전에서 1931년 봄에 조성한 도리사의 작품 이후 작품예가 전혀 없다고 한 점을 참고하여 1931년 입적이 틀림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상 일곱 가지 문제가 풀림으로써 완호의 생애에 대하여 병산의 일각이나마 밝혀진 셈이다. 22세의 자식을 일경의 고문에 의하여 잃었던 역사적 불행을 겪고 간 화승, 불교 미술계에 비전통이 유행했던 가치 혼돈의 시대에 지식과 종교철학을 바탕에 깔고 수행을 실천하면서 전통미술을 고수하였던 완호는, 무엇보다 전통의 가치에 시대의 혼탁성을 뒤섞지 않고 새로운 교화철학을 담아낸 수준 높은 기량을 유지하였다.

조선 숙종대 임한화승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영남화맥의 끝자리에서, 사숙 없이 독학으로 전통 화법을 지켜내었고, 제자 양성으로 그 전통의 맥을 현대에 이어준 시대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말기 무능한 정치력에 전국적인 민란이 끊이지 않던 혼란의 시대이자 외세의 억압에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였던 시대에 완호는 태어났고, 길고 긴 일제의 암흑기간을 살다간 한 화승의 족적은 남겨진 자료의 부족으로 간단히 소개되었지만 그 행간을 읽어 내어야 할 후학들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남아있는 유작을 통하여 그의 예술적 업적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작품에 대한 연구는 一面 一筆도 빠뜨림 없이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불상과 불화를 동시에 조성해 온 특별한 화사로 영남지역의 불교미술에 끼친 영향은 이후 제자들의 활동에서 보듯이 매우

크다. 현재 한국 불화장 석정 스님이 근대를 대표하는 여러 화사들 중에 완호는 禪行과 技藝, 고결한 인품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인격의 완성도도 일반 화사와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부산에서 자생하여 전통적 가치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전통미술 세계의 지평을 열어준 독보적 성과를 이루어낸 탁월한 인물로서의 완호불모에 대하여, 그의 유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근대 한국 불교미술사의 중앙 단상으로 자리매김이 되겠지만, 잊혀진 생애가 밝혀진 이상, 부산은 부산 문화계의 스승으로 그를 기념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현대 미술가들로 채워진 미술교과서에도 전통 미술가를 함께 안내하여 균형 잡힌 미술교육서로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은 이 지방을 빛낸 인물에 대한 후손들의 의무이자 과거의 역사를 미래의 비전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건인 역할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명문당, 1995, 『韓國佛教大事典』, 重版本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0.12. 『韓國近現代 佛教史年表』
- 이만렬 편, 1996, 『韓國史年表』, 역민사
- 이동술 편, 1997, 『韓國寺刹寶鑑』, 우리출판사.
- 한문영 정리, 2000.2. 『韓國書畫家人名事典』, 汎友社刊,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伽山佛教大辭林.
- 한국미술연구소, 2001, 오세창의 『國譯 權域書畫徵』, 시공사, 상·하
- 강대민 외, 2008, 『영도 복천사의 역사와 문화』 경성대학교한국학연구소
- 芮庸海, 1970, 『단청』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81號, 文化財管理局.

- 김순석, 2003, 12. 『일제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 대한불교조계종총무부편, 2001, 『일제시대불교정책과 현황』 上,
선우도량출판부
- 불교사학회, 1988, 『근대 한국 불교사론』, 민족사
- 부산 사찰 연합회, 1980, 『부산의 사암』
- 石 鼎, 1992, 『한국의 불화초본』, 통도사성보박물관
- 장희정, 2003, 『조선후기 불화와 화사연구』, 일지사
- 절영지간행위원회, 1983, 『절영지』, 소문출판사
- 洪潤植, 1995, 『韓國佛畵 畵記集』 1, 가람사 연구소.
- 이지관, 1992. 『가야산 해인사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한국의 불화』 1권, 통도사 본사편(上)
- 문년순, 2007, 『금어 양완호의 예술세계와 영도 복천사』 동국대
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석곤, 2001, 『金魚 月洲 元德文의 佛畵世界』,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청구논문
- 강대민, 2008, 「양정욱의 抗日運動 小考」, 『복천사의 역사와 문
화』, 경성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41쪽
- 문년순, 2008, 「일제강점기 불화 화기 연호 사용 연구」, 『박물관
연구논집』, 부산박물관,
- 安貴淑, 1994~1995, 「朝鮮後氣 佛畵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 『미술사연구8, 9』 .
- 김준기, 2008. 4. 24, 「부산미술 다시 읽기」 부산일보

투고일	심사일	재심사일	심사완료일
2009. 10. 31	2009. 12. 3 ~ 12. 15	2010. 3. 18	2010. 3. 20

【국문초록】

佛母 梁玩虎는 일제 강점기에 부산 동래에서 태어나 20여 년간 영남의 불교 미술계를 장악했던 존경받는 불모였다. 그는 범어사의 불화소에서 불화·불상 조성을 하였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그의 작품 경향은 전통의 계승이었다. 그가 생존했던 당시는 서양과 일본을 통한 서양문화의 대량유입과 함께 전국적으로 서양화풍의 기법이 전통화법을 무너뜨리고 있던 시기였으며, 그 시기에 완호는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해 낸 전통불화의 마지막 계승자이자 근대 불화의 시작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따라서 완호 연구는 부산 근대사의 한 부분이자 부산 문화사 정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겠다.

이 글은 유작에 대한 예술론은 제외하고 생애를 중심으로 한 내용 중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거나 밝히지 못한 생애의 몇 가지 의문점 가운데 7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본 것이다.

생애복원을 위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결론은 그의 입산 출가 연도를 27세(1896년)를 가장 근접된 연도로 보았고 혹 27세의 전후로 결론 내렸다. 출가 본사는 범어사이며, 완호가 운영했던 화소는 범어사의 해행당 건물에 설치된 범어사 화소라는 것과 범어사 화소는 제자 월주 덕분이 1969년까지 운영하였다는 점, 완호가 언제 얼마의 기간동안 머물렀는지 알 수 없었던 복천암에서의 생활은 2008년에 현 복천사 상량문에 의하여 복천암의 창건이 1921년임이 밝혀졌고 따라서 완호의 복천암 생활은 1921년 9월부터 입적할 때까지 약 10년 정도였음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완호의 화맥 계보는 어느 화승집단이 아니라 畫面私塾으로 이루어내었으며, 마지막으로 入寂年度는 1933년이라고 한 영도구청의 재적등본 보다 문화재청의 보고서 기록을 선택하여 1931년으로 밝힌 것이다.

이 일곱 가지 문제가 풀어짐으로써 완호 생애에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조선말기 영남 화맥의 끝자리에서 사숙 없이 독학으로 전통 화법을 지켜내었고 제자 양성으로 그 전통의 맥을 현대에 이어준 시대적 역할을 담당 하였던 완호는 민족적 암흑기인 불행한 시대임에도, 전통의 가치에 시대의 混濁性을 뒤섞지 않고 수준 높은 예술을 창출함으로써 근대 불화에 신선한 충격을 남겼으며, 오늘날 釜山 사람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면서 부산의 문화예술계를 새롭게 조명 시켜주고 있다.

핵심주제어 : 완호, 범어사, 일제강점기, 전통미술, 화소, 화사, 복천암, 제자, 화맥계보

【Abstract】

Reconsidering Bulmo(佛母) Yang Wan Ho's life

Moon, Nyeon-soon /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Appraisal

Bulmo Yang Wan Ho was born in Dongrae, Busa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 was respected as a figure who took the lead in the circle of Buddhist painting of Yeongnam region over two decades. He engaged in making Buddhist paintings and states in the place of Buddhist painting inside the Beomeosa Temple, where he also trained disciples. The core of his works lied in the succession of tradition. He lived in the period when

Western culture was being mass introduced to this country from Japan and the West and when techniques of Western painting are rapidly substituting those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 At that time, Wan Ho established his own painting style while succeeding the traditional painting style. He was not only the last successor of traditional Buddhist painting, but also the initiator of modern Buddhist painting. Thus, researches on him is very significant in establishing the cultural history of Busan as a part of its modern history.

This study does not focus on aesthetic discussions about his works which are still remained. Rather, the study focuses on seven unsolved problems or questions about his life that were raised by previous studies.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He left home to be a Buddhist priest at the age of between 23(1892) and 27(1896). He joined the Buddhist world at the Beomeosa Temple. He managed the place of Buddhist painting which were inside Haehangdang as a building of the temple. Later, the place of Buddhist painting was managed by his disciple, Wolju Deokmun until 1969. It had been uncertain when and how long Wan Ho stayed at Bokcheonam. But as records on the construction of the present Bokcheonsa Temple were discovered in 2008, it was found that Bokcheonam was founded in 1921 and he stayed there for about 10 years from September, 1921 to his entering Nirvana. Genealogically, Wan Ho's painting style was transmitted by a school of Buddhist painters, but by Buddhist individuals who he privately tutored. Finally, the year when he entered Nirvana was found 1931 in accordance with record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In this case, registers filed in Yeongdo-gu

Ward Office which specified Wan Ho entered Nirvana in 1933 were not considered.

It is fortunate that the seven issues were solved, so that we could have more access to Wan Ho's life. In the late Chosun period, Wan Ho was the last person who succeeded the painting style of Yeongnam region. He kept the techniques of traditional painting only through his efforts without the help of private tutoring. He brought up disciples who in turn transmitted the traditions of Buddhist painting. Even in the dark age of the Korean nation, he protected the value of traditional Buddhist painting from being contaminated by the trends of the age. He raised Buddhist art to a higher level, giving a fresh shock on modern Buddhist painting and making the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of Busan newly illuminated.

Key words : Wan Ho, Japanese colonial period, Buddhist painting. Korean traditional painting. Beomeosa Temple. Bokcheonam. Bokcheonsa Temple. Monk painters. Buddhist art.